모든 학생이 행복한 미래
모든 교사가 행복한 수업

#수업태그

사진설명 군자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MSG" 수학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SPECIAL

교과역량! 넌 누구냣!

TALK 1

나만의 수업 브랜드, 나만의 수업디자인

FEATURE

주제통합수업_중등래퍼 쇼미더우정

수업 INSIDE

"MSG" 수학수업을 소개합니다.

TALK2

자유학년제, 교과역량함양을 위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수업人

맥락 속에서 배우는 영어수업 /
"월드까페"로 배우는 포스트모던 드로잉 수업

FOCUS

꿈과 끼를 펼치는 군자중 자유학기제

INTERVIEW

올바른 학습공동체를 위한 방향

역량기반수업연구회(#수업태그)

모든 학생이 행복한 미래
모든 교사가 행복한 수업

#수업태그

사진설명 군자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MSG" 수학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SPECIAL
교과역량! 넌 누구냐!

TALK 1
나만의 수업 브랜드, 나만의 수업디자인

FEATURE
주제통합수업_중등래퍼 쇼미더우정

수업 INSIDE
"MSG" 수학수업을 소개합니다.

TALK2
자유학년제, 교과역량함양을 위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수업人
맥락 속에서 배우는 영어수업 /
"월드까페"로 배우는 포스트모던 드로잉 수업

FOCUS
꿈과 끼를 펼치는 군자중 자유학기제

INTERVIEW
올바른 학습공동체를 위한 방향

역량기반수업연구회(#수업태그)

C O N T E N T S

2018 OCTOBER VOL.03

7
SPECIAL
교과역량! 넌 누구냐!

10
TALK 1
나만의 수업브랜드, 나만의 수업디자인

15
FEATURE
주제통합수업_중등래퍼 쇼미더 우정

18
수업 INSIDE
"MSG" 수학수업을 소개합니다

21
TALK 2
자유학년제, 교과역량함양을 위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4
수업人
(1) 맥락속에서 배우는 영어수업을 소개합니다.
(2) "월드까페"로 배우는 포스트모던 드로잉을 소개합니다.

29
FOCUS
꿈과 끼를 펼치는 군자중 자유학기제

31
INTERVIEW
올바른 학습공동체를 위한 방향

33
CULTURE
평균의 종말, 공부상처, 학교란 무엇인가 1, 어느가족

◘ 역량중심수업 사례 발표회

◘ 교육과정 교과역량 정담회

교과역량! 넌 누구냣!

학생들의 교과역량 함양을 위한 선생님들의 치열한 삶의 이야기

" 역량은 절대 단편적이지 않고, 즉각적이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의 힘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2년 동안 우리가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일이다. "

역량중심수업을 받아보지 못했던 세대
역량이란 낯선 단어 앞에 서다 !

교과역량에 관한 연구가 벌써 2년째이다. 우리는 각자의 교과역량을 끌어안고, 대체 이놈의 역량이란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체화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역량은 아무리 째려보고, 노려보아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역량중심수업인지, 역량중심평가인지 10시간의 백워드도, 다양한 전문가의 연수도, 손에 잡히지는 않고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다.

한 번도 역량중심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내 기억에 나는 학창 시절 미술시간을 제외하고 모둠학습을 해 본 기억이 없다. 내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를 했던 협동수업, 프로젝트수업, 주제통합수업? 이런 걸 해 본 기억이 없다. 나도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수업을 누군가에게 해보라니, 아득하고 두렵기만 했다.

언젠가 한 연수에서 야성을 깨치는 수업을 하라! 포유류의 뇌를 자극하는 수업을 하라! 고 외치시던 교장선생님의 연수에 감명을 받았었다. 정말 야성을 깨치고 포유류의 뇌를 자극하는 역동적인 수업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때도 궁금했다. 대체 그런 수업의 실제는 어디 있나요? 어디로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은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군자중학교에 몸 담은 모든 선생님은 같은 마음이었다. 해야 할 업무도 늘 많고 매일 학급 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생활지도의 폭탄과도 같은 학교라 담임 선생님들은 매일 교실에 들어가기를 겁을 내신다. 교과 선생님도 수업 이후 한숨을 푹푹 내쉬는 건 일상적 풍경이다.

교과역량에 관해 늘 고민하고 연구하며 협의하고, 토론했지만 한 번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았다. 그렇다. 우리가 교과역량에 대해 2년이나 연구했으니 더 특별하고, 더 대단하고, 더 멋지게 '성장했냐' 물으면 자신이 없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교과역량 연구냐. 대체 한 게 뭐냐라고 물을 수 있겠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우린 정말 달라진게 없을까?

역량중심수업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

우리는 실제로 늘 '생각'하고 '고민'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어떻게 하면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 역량중심수업을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나누었다. 누군가 성공의 사례가 있으면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고민하고, 적용해보고, 실천하는 일의 반복이었다. 그걸 2년 동안 반복했다. 적어도 우리는 이해중심교육과정을 이해했고, 백워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왜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평가를 먼저 염두해두고, 수업을 설계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았다. 각 교과의 교과역량을 붙들고, 대체 이 놈의 역량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머리를 꽁꽁 싸매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기 때문이다.

▲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정담회

▲ 역량중심수업 사례발표
김초은 선생님의 '마을테마지도그리기' 발표 장면

결국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간이 되기 위해 한 개인이 갖추어야 할 그 역량이 비단 단순 암기위주의 지식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무섭다. 아직도 우리는 역량중심수업이 어렵기에 혹여 나의 수업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까, 나만 지금 잘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된다. 그 때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수업연구회와 전문적학습공동체였다. 나 혼자만 자책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싶어 외롭지 않았고, 저 선생님은 저렇게 수업하는 구나 알게 되어 위로가 되었다. 나만 혼자 고군분투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것이 힘이 되었다.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할 때 우리는 성장했다.

▲ 3학년 주제통합수업을 위한 협의

▲ 1학년 주제통합수업을 위한 협의

▲ 역량함양을 위한 생활지도협의 한수환 선생님의 발표장면

교과역량을 연구하며 내린 결론은,

첫째, 대부분의 교과역량을 합하면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이루므로 통합된 핵심역량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한 학교가 함께 움직일 때 더 큰 힘이 된다. 다같이 연구할 때는 핵심역량으로 연구하는 것이 응집력 있다. **학교 전체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있어서는 핵심역량으로 설계하는 것이, 각 교사의 개별 수업과 평가에 있어서는 교과역량으로 고민하는 것이 더 의미 있었다.**

둘째, **정해진 교과역량에 매몰되기보다 교사 자신이 교과역량을 새롭게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예를 들어 도덕과의 윤리적 성찰 및 실천성향을 나는 도덕실천능력으로 간결하게 바꾸고 싶고, 대인관계능력과 정서능력 공동체의식을 도덕적소통능력으로 통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대부분 역량중심수업을 설계할 때 대인관계능력을 고민하여 수업을 디자인하면 결국 도덕적정서능력과 공동체의식이 함께 함양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셋째, **교과역량전문가를 더 많이 키워내서 각 학교마다 수업컨설턴트를 배정해주면 좋겠다.** 아직도 우리는 수업 을 설계할 때마다 내가 제대로 하는지 싶어 걱정이 된다. 우리 학교도 학기별로 1회씩 수업 사례를 냈고, 이번 학기는 백워드까지 냈는데 내가 하고도 이게 제대로 한 게 맞는 지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었다. 같은 학교 내에서 한 교사가 한 교사를 피드백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평가에 대한 개입은 더 쉽지 않다.

넷째,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이론적 기반이 이해중심교육과정이라면, 평가 설정이 수업 설계에 선행되어야 한다면, 지필평가 출제 역시 1차, 2차 지필평가 1-2주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3월에 완료되어야 마땅하다.** 수업문제 역시 단답식의 암기위주의 문항이라면, 이 역시 고려해봐야 한다. 아무리 학생 활동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했다 하더라도 평가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수업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교육이 발전되기 만무하다.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이란 이름을 붙히면 우린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학생의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중심평가의 개발과 학교의 보급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역량중심수업과 평가를 아무리 해도 대입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올 해 결정된 대입에 역량에 관한 갈망으로 매진하는 현장 교사로서 마음이 여러모로 무거웠었다.

교과역량은 결국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고, 학생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미래에 유용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가 아닐까 싶다. 역량은 절대 단편적이지 않고, 즉각적이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의 힘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2년 동안 우리가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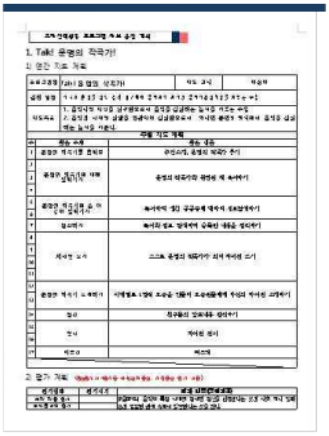
글 | 이정은(혁신교육부)

#수업태그 우리들의 이야기

주제선택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꿈과 목표를 찾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도록 도와주는 자유학년제는 다양한 체험중심 활동 수업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생들의 흥미, 관심사에 맞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깊이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주제선택 활동에는 교사의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학생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평가는 과연 무엇이고 교사는 과연 수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0월 19일 #수업태그 모임에서는 주제선택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서로의 계획을 나누며 프로젝트 수업 준비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 중심 수업에서의 평가와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Talk! 위대한 작곡가!' _ 음악과 이경이

음악은 주제선택으로 보통은 하지 않지만, 혹시 주제선택으로 한다면 이런 수업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음악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문화생활을 즐길 때에도 꼭 필요한 문화적 소양이로고 생각해요. 모차르트가, 베토벤이, 쇼팽이, 바그너가, 차이코프스키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그 시대의 음악이 당대 사회적 사건들과 어떤 영향을 받고 발전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음악을 감상하면 음악의 깊이가 훨씬 깊어지죠! 항상 서양음악사 수업을 깊게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부족으로 일방적인 전달 수업밖에 못해서 자유학기를 이용하여 이런 수업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시대별로 다양하게 30명 정도의 작곡가 책을 준비해서 학생이 운명의 작곡가를 뽑아 주제선택 기간 동안 심도 깊게 탐구하고 그 인물의 자서전을 써보는 거예요. 또한 탐구하는 한명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로크, 고전, 낭만, 근현대 시대별로 모여 모둠을 만들고 자신의 자서전을 소개하고 친구들의 발표를 듣는 수업으로 주제선택프로그램을 계획했어요.

'매체로 만나는 영어' _영어과 김애라

제가 작년에 했던 주제선택 수업은 영화수업이에요. 영화 보기 전에 표현 배우고, 영화를 보면서 익힌 후에 마지막 활동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수업을 했어요. 아이들이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수업을 하면서 영화만 보는 시간이 되지는 않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은 소설을 주제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많이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은 글을 읽는 것을 싫어하는데 거기에다가 영어이니까 아예 안 읽게 되어서 지금은 그림이 크고 글은 거의 한줄 정도만 있는 그림책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다음에는 팝송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노래에서 연음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가사 없이 불러보고, 단어 배우고, 가사보고 불러보기로 해볼까 해요.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노래로 선택해서 불러보는 활동을 하려고 해요.

이정은 *전부 같은 주제로 진행하는 것 보다 프로젝트를 하나씩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를 하나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난 후 소설로 넘어가고, 그 다음 노래로 큰 프로젝트를 4개로 진행하는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더 짜임새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군자인들이 만들어가는 ACTION DO! 德!' _도덕과 이정은

오래전부터 군만두 수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는데 이제 드디어 자리를 잡은 느낌이에요. '주제선택시간에는 평소에, 일반적인 수업에서 못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혐오를 혐오하기'로 언어와 관련된 혐오, 이성 간의 혐오 등 일상 속의 혐오에 관련해서 다뤄보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거모동을 위하여'로 마을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계획했어요. 세 번째가 '통일한국'으로 통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보드게임과 북한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을 추가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했어요. 마지막으로 원래 수업에서 인터뷰하는 수업을 했었는데 이것을 조금 확장해서 '사람책이야기'로 몸을 움직이고 교실을 떠나는 수업을 해보고 싶어서 계획했어요. '파랑새 프로젝트'는 소라쌤의 포토에세이 수업이 너무 좋아서 마을과 교정에서 행복을 찾는 것을 주제로 포토에세이를 만들어 마무리하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미술을 만나다' _미술과 김소라

우리 학교를 기준으로 주제선택프로그램의 대상인 1학년 학생들은 미술을 처음 접해보는 것이라 어떤 주제를 선택할지 고민해보았는데, 일상에서 미술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미술의 '미'는 아름다울 美이기 때문에 2, 3주차에는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자신의 기준을 먼저 세워보고, 우리 주변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보는 것으로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4주차부터는 '일상에서 미술을 만나다'를 주제로 우리 주변, 집, 편의점, 학교, 시흥, 미술관에서 미술을 찾고 표현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수업을 구성했어요. 평가계획을 세울 때 평가주제를 실기평가로 내가 평가할 것을 선택하는 느낌이었는데, 주제선택프로그램으로 17차시의 계획을 해보니 체험, 표현, 감상 모두 세부적인 자유로운 평가가 가능해서 좋았어요.

이정은 *주제선택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수업에서 진행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창작시반' _영어과 이나연

창작시반은 지금 하고 있는 자유학기 2시간 동아리 수업이에요. 지금까지 5주차 수업을 해보았는데,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시를 쓰는 것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학생들이 잘 참여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언어 관련된 과목이니까 국어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름으로 삼행시를 쓰고, 모둠을 구성해서 자기소개를 해보는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발표하는 것을 생각보다 많이 꺼려해서 이후에는 시노트를 주어서 시를 써보도록 했어요. 처음 계획하고 바뀐 것은 그 때 있었던 행사 관련해서 시를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 3주차에는 수련회와 추석에 관련된 느낀 점을 표현해보도록 했어요. 마음에 드는 친구들의 시를 고르는 활동까지 진행했었는데 의외의 학생이 1등을 해서 많은 칭찬을 해주고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다음 활동으로는 이제 가을이 되어서 학교주변을 1시간정도 돌아다니며 낙엽을 줍고 그 낙엽에 시를 쓰는 활동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마음에 드는 글귀로 책갈피 만드는 활동들을 진행했어요. 계획서는 짜놨는데 매주 새롭게 변형해 나가고 있어요. 원래의 목표는 한 단어로만 시작하는 영어 시 Acrostic poem을 쓰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것을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어서 아쉬워요. 학생들이 잘 적응한다면 중학교 1학년 수준이라도 마지막에 짧게 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정은 *지금까지는 영어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한글로 진행한 건가요? 마음 카드를 활용해서 느낌을 영어 단어로 표현하는 것처럼 영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소라 *모방시처럼 뚫어만 놓고 각자가 원하는 단어를 바꾸어서 쓸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 )의 ( )처럼 빈칸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단어를 찾아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더 영어에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의퍼즐반' _수학과 정지인

창의퍼즐반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제선택 프로그램이에요. 수학시간에는 보통 문제를 푸는 활동을 하니까 주제선택 시간에는 학생이 만들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학생들이 도형에 대해서 배우니까 내용이 도면 만들기나 보드게임을 하고 있어요. 보드게임을 진행하면서 수학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게 하고, 마지막에 전략을 세워서 게임을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보드게임으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학생들이 쉬운 보드게임만 하려고 하고 노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머리 쓰는 것을 안 하려고 해서 다음부터는 학습지랑 같이 수학적 원리를 찾고, 전략을 세우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까지 도입하려고 합니다.

'FUN FUN한 과학' _과학과 박민영

과학에 대한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수업을 준비해봤어요. 제가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았는데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프로젝트, 내 몸에 대해 알아보는 것과 우리 생활 속에 과학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수업을 구성했어요. 제가 생명과학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재미있게 공부했던 부분이 유전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자신의 몸에 대한 과학을 배우면 학생들도 저처럼 재미를 느끼고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과학을 알아보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분야별로 과학 마술, 건축 속 과학, 음악 속의 과학, 음식과 관련된 과학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어렵게 생각하던 과학을 친숙하게 느끼고 잘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려라 한문' _한문과 신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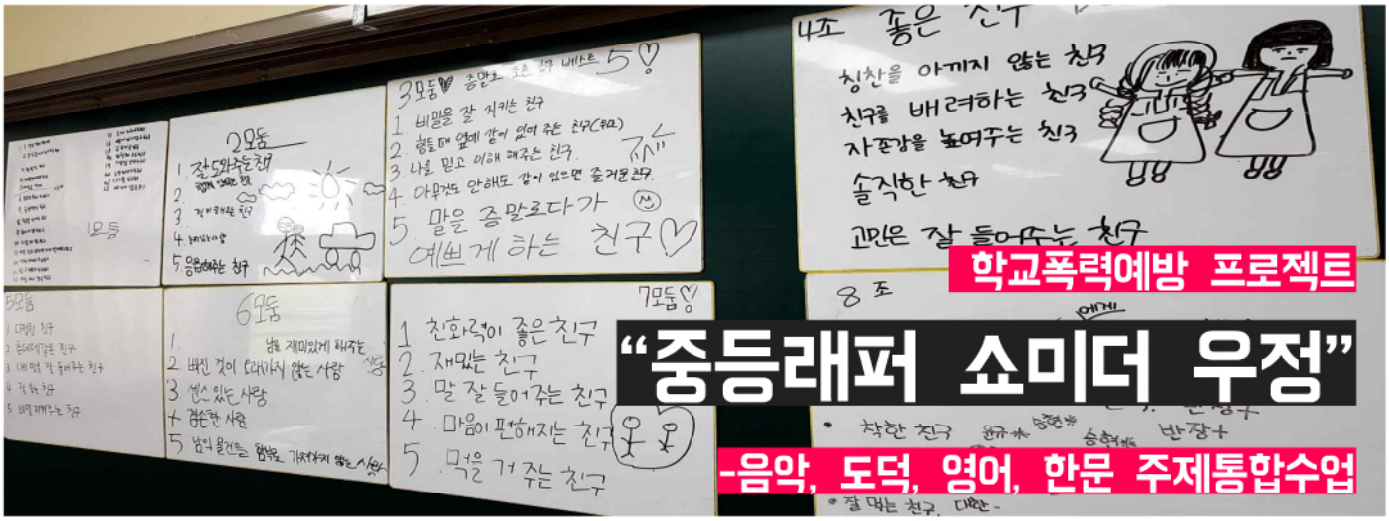
지금은 고궁을 주제로 주제선택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경복궁 만들기 세트를 준비해서, 첫 시간에는 경복궁에 있는 현판을 이루고 있는 한자 익히기, 두 번째 시간에는 경복궁 현판 익히기, 세 번째 시간에는 경복궁 만들기를 진행했어요. 경복궁을 만들고 만든 세트 위에 현판 위치에 맞게 붙이는 것으로 현판의 배치와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으로 한 달 수업을 했어요. 경복궁이 끝나고 이제 창경궁을 하려고 현판에 있는 한자를 익히는 것으로 수업을 했는데, 경복궁 프로젝트와 너무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런지 학생들이 많이 지루해하는 느낌이어서 많이 고민이 됩니다. 방학 내내 고궁을 돌아다니면서 학습지를 만들었는데 다른 방법을 도입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이정은 *고궁 이해하기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했으면 그 다음은 인물이나 이름의 뜻을 알아보는 것, 한자와 관련된 드라마 제목이나 영화제목, 노래가사 등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포스트 모던 미술반’ _미술과 김초은

이번 미술 이론 수업은 1960년대 이후 현대 미술이었어요.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 미술을 아이들은 쉽게 이해하고, 적용 하더라구요. 저희는 영상 미술을 보며 ‘영상이 미술이 돼?’라고 말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유투브를 보며 자라온 이 아이들은 ‘영상이 미술이 왜 안 돼요?’라고 말하는걸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포스트 모던 미술을 해 보고 싶어요. 작가의 선택에 의해 일상품이 예술작품이 되는 레디메이드에서부터 영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영상 미술까지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본다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어요. 특히 아상블라주 수업은 집에 있는 고장난 일상품들을 가져와서 직접 분해하고 만들어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최소단위로 스프링과 건전지 등을 분리해낸 뒤에 이것을 재조합해서 만들어보는 단체 조형미술이요. 직접 만들다 보면 더욱 현대 미술과 가까워 질수도 있고, 또 미술을 보는 시각적인 안목도 생길것이라 생각해요.

글 | 박민영 (정보과학부)



우리가 모이게 된 계기

이 수업은 두 가지 문제에서 시작했다. 첫째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울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대변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둘째 학생들에게 깊숙이 자리잡힌 힙합문화 열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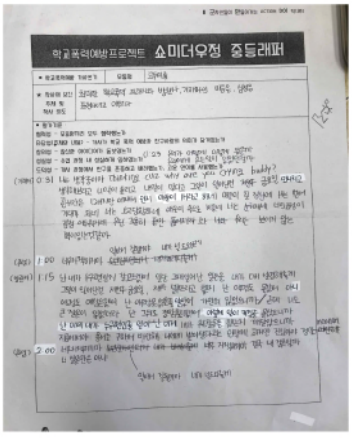
첫 번째 문제의 심각성을 두 번째 문화로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네 명의 문제의식이었다. 요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아이템은 단연 랩이다. 현재 방영중인 고등래퍼와 이미 종방한 쇼미더머니, 언프리티랩스타와 같은 프로그램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멜론과 같은 음악 사이트의 차트의 상위권에도 랩이 포함되어 있고, 아이들에게 어떤 음악을 듣고 싶어? 라고 물으면 아이돌 음악 아니면 랩이라고 대답한다. 주류 문화가 된 힙합. 왜 그리 열광하는 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내는 랩퍼에 대한 동경, 나도 내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반영이 된다.

랩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아이들의 진심을 담아보자! 그것이 우리의 의도였다.

나는 음악교사로서 늘 랩 수업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주제통합수업에 임하였다.

랩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아이들의 진심을 담자!	
도덕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태도 -피해자와 방관자, 가해자의 입장에서 각각 공감해보며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갖기
음악	-힙합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알고 힙합문화가 특정 시대의 정서와 정신을 반영했다는 것에 대해 알기 -음악은 사회·역사·철학과 관련되어 발전한다는 것을 알고 음악에 자신의 철학을 담아 자신을 표현 -랩의 특징(라임, 펀치라인 등)을 살려 랩 가사 만들기
영어	-팝송 'Hopeful'을 통해 학교폭력에 관한 영어 표현을 배우고 랩에 영어가사로 적용하기
한문	-친구사랑에 관한 사자성어를 배우고 랩 가사에 적용하기

▲ 수업에 담고 싶었던 것들
▼ 활동사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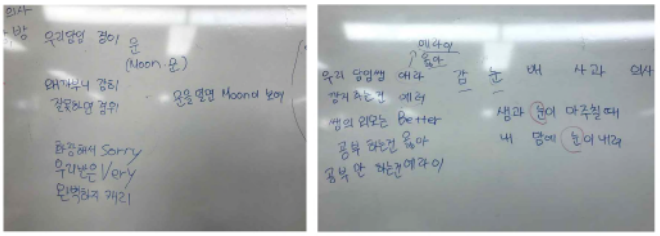
수업전개도

1주차	도덕	-SNS상에 번지는 관심병을 통해 관심병의 원인 진단하기 -앙케이트 설문조사: 가장 듣기 싫은 친구의 말/가장 듣기 좋은 친구의 말 BEST5 이런 친구 유형 싫다/이런 친구 유형 좋다 BEST5 -부산 울산 학교폭력 사례를 통해 문제 인식
2주차	음악	-힙합 영화 '8mile'의 영상을 부분적으로 감상하며 흑인 문화 속에서 발전한 힙합문화에 대해서 당시 시대상황과 관련지어 이야기하기 -영상을 보며 힙합의 구성요소와 역사, 랩의 특징에 대하여 배우기 -랩 '촛불하나'를 배우고 랩 속에서 배운 랩의 특징 찾아보고 적용하기 -랩의 특징을 적용하여 담임선생님에 대한 랩 써보기
	영어	-학교폭력에 관한 팝송 'Hopeful'의 가사를 해석하며 학교폭력과 관련된 영어 표현 배우고 자신의 느낌 표현하기
	한문	-우정과 관련된 한자어에 활용되는 한자 익히기 -우정과 관련된 한자어 속 한자가 활용되는 다양한 한자어 찾기
3주차	도덕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공감하기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담긴 가사 쓰기'
	음악	-자신의 철학과 특징을 담음 '랩 네임'만들기 -랩의 특징을 살려 가사 쓰기 (도덕 시간에 써온 가사를 검사받으며 피드백)
	한문	-가사에 들어갈 한자어 세가지를 찾고 외우기
	영어	-랩 가사에 들어갈 영어 가사 만들기
4주차	음악	-랩 파트 나누고 연습하기 -리허설 하기
5주차	음악	-최종공연 및 전체 평가하기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수업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방학 때부터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했던 것 같다. 랩과 힙합문화와 관련된 책도 구입해 읽으면서 공부도 하고, 랩 수업 사례도 찾아보면서정말 열정적으로 수업준비를 했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아서 양이 왕창 늘어났다가 다시 줄이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기대가 컸다. 늘 주제통합수업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활동수업을 자주 하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그 활동과 관련 있는 교과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 결과물도 훨씬 좋아지고 시간도 단축될 것이며, 하나의 결과물로 수행평가를 하는 아이들의 부담도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이 수업 또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수업을 준비했다.

영상을 보면서 힙합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랩을 배우며 랩의 특징에 대해서 배운 후 라임(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는 것)과 펀치라인(이명동음어를 사용한 언어유희)을 넣어 자기소개 랩 가사를 만들어보자고 했더니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떻게 해야할지 감을 전혀 못 잡아서 결국 다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담임선생님을 주제로 랩 가사를 써보자고 했다. 아이들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해서 하면서 많이 웃었다.



▲ 랩 가사 써보기 활동

아이들이 가사 쓰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했다. 만약 음악시간에만 가사를 썼다면 가사 쓰는 시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다. 그래도 아이들이 가사를 쓴 것을 보고 많이 감동했다. 가사에서 아이들의 진심을 엿볼 수 있었다. 방관자 입장에서, 가해자 입장에서, 또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화하는 입장에서, 아주 다양하고 진정성있는 가사를 만들어냈다. 또 랩의 특징인 라임(발음이 같거나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만드는 것), 펀치라인(이명동음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도 재치있게 써내는 것을 보고 아이들의 창의력에 감탄했다. 단지 아쉬웠던 것은 아이들이 가사 종이를 음악시간에도 쓰고 도덕시간에도 쓰고 영어시간, 한문시간에도 쓰다 보니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꽤 있었다. 써놓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 공연모습

두근두근 공연날!

우여곡절 끝에 공연 날이 다가왔다. 아이들은 매우 긴장했고 나는 긴장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너무 재밌었다.(하하) 아이들에게 '너희 진짜 대단한 거 하는거야. 선생님이 너희 멋지게 랩 하라고 마이크도 샀어!' 하며 요즘 유행하는 싼 블루투스 마이크도 구입해서 아이들 손에 하나둘씩 쥐어줬다. 물론 음향은 좋지 않았지만 마이크 하나를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신나했다. 모자, 선글라스 등 소품도 허용해줬다. 어떤 반은 모두 외워서 멋지게 공연하는 반면 어떤 반은 가사 종이를 들고 중얼거리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도로 잘하고 못하고는 반마다 천차만별이었지만, 수준과 실력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을 담은 랩을 써서 아이들 앞에서 공연까지 해낸 아이들이 대견했다. 단 한 팀의 아이들도 하지 않겠다고 포기한 아이들은 없었고 부끄러워도 부끄러운 대로 공연까지 해냈다.

수업을 마치며-교과통합수업에 대한 고찰..?

임용 후, 어찌 보면 정식 첫 교과통합수업이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웠던 점들도 많았다. 먼저 교과통합수업을 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시간 분배**와 **전문성**적인 측면이었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하여 아이들이 진심으로 생각해보게 하자는 공통의 주제로 각 교과에서 자기 교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수업을 하니 혼자 하는 것 보다 확실히 체계적으로 과제를 풀어갈 수 있었다. 랩 가사를 쓰면서 이미 도덕시간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하고 온 아이들이 진정성있게 가사를 쓸 수 있었으며, 랩에 영어가사라던지 사자성어 등을 포함시키며 랩 가사의 퀄리티도 올라갔다. 둘째, 수업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이 '가사 쓰기'였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가사 쓰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모든 교과에서 통합해서 가사 쓰는 시간을 주니까 한 교과에서 너무 많은 진도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어 그 부분에서 좋았다.

아쉬웠던 점은 역시 **교과 선생님들과의 협의**였다. 다들 담임업무에다가 교과업무, 부서업무 등으로 바쁘다 보니 진득하니 모두 모여서 협의할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수업에 대한 이해가 다르게 되어서 아이들이 우왕좌왕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문 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영어 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와 같은) 그리고 우리 학교 1학년은 순회선생님께서 음악을 같이 수업하시다 보니 여러 가지로 협의가 잘 안되고 전달도 잘 안됐던 부분도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에게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는데, 가사 쓸 때 너무 힘들었는데 몇몇 선생님들은 가사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지 않고 가사 쓰는 시간만 주셔서 힘들었다는 말도 있었다. 수업에 대한 논의만 됐더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둘째로는 **모둠원 아이들간의 갈등**이었다. 아무래도 한 모둠으로 4개의 과목에서 모두 수업을 하다 보니 아이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다른 과목 시간까지 고스란히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이었다. 한 과목 안에서의 일이면 담당 교과교사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 과목에 거쳐 모둠활동이 진행되다 보니 갈등을 발견한 교사(?)가 이 선생님 저 선생님에게 뛰어다니며 상황을 설명해줘야 했다.

아무래도 아직 완전한 교과통합수업, 이상적인 교과통합수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것 같다. 과도한 업무량, 생활지도 등으로 협의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사들이 교과연구와 교사 간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면 아이들에게도, 교사에게도 분명 좋은 수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 | 이경이(학생안전인권부)

즐겁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MSG" 수학수업을 소개합니다

2년차 교사의_수업이야기

나는 2년차 교사이다.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 처음 1년차 때에는 하루살이처럼 매일매일 하루치 수업을 준비하는데 급급하였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그냥 한시간 한시간 수업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또한 학생들의 활동보다는 진도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강박에 쌓였고 학교에 적응하기 바빠 수업을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소홀하였다. 그러다 선배교사의 수업을 보다 나도 저런 수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브랜드를 만들어 보라는 말에 열심히 고민하였다. 1년차 2학기때에는 Math 씬 이라는 것을 만들어보았다. 크라임씬이라는 것을 보다가 삶의 한 장면속에서 수학을 발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만들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러다 고민 끝에 MSG를 만들게 되었다.

#내가_생각하는_배움 처음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우연히 가르침을 알게된 선배교사가 있는데 그때 수학을 삶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삶속에 수학을 녹인다면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자극되며 배움

또한 강요하지 않아도, 주입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것이다. 나와 관련없는 지식의 학습은 나에게 의미있는 배움이 아니듯이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나려면 학생들의 삶과 관련있고, 학생들이 해볼수 있는 것일 때 비로소 배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MSG?

#수업브랜드의_필요성 #수업태그(군자중 역량중심수업연구 교사동아리)회장님인 이정은 선생님은 후배교사들에게 수업을 조금 더 세련되게 조직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추천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브랜드를 고민한지 2만에 아직 미완성이지만 나에게 맞는 브랜드 MSG를 만들었다.

#MSG? 사실 "수학 맛을 내다 MSG"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준비하면서도 재미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 평소 좋아하던 게임을 수학에 접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연히 MSG라는 단어가 탄생하였고 조미료가 생각나 우리 삶에 수학을 첨가 하여 수학의 맛을 알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MSG 수업의 구성"

MSG수업은 관심을 갖지 않아 보이지 않았던 수학을 찾아보고, 조금 더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MSG수업은 M-수학 맛보기, S-수학 맛 첨가하기, G-수학 맛 내기 세가지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교과내용을 보고 소단원 하나, 혹은 소단원의 내용에 따라 두 부분 등으로 나누워 MSG 수업을 크게 구성한다.

Math 시간은 수학 맛보기 시간이다. 쉽게 동기 유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때는 배우게 될 전체적 내용을 이야기하게 된다. 관련 영상, 뉴스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물음표가 떠오른다면 성공이며 관심을 갖는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Study시간은 수학 맛 첨가하기 시간이다. 이때는 배워야 하는 수학적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이전 시간에 제시했던 물음표를 하나씩 느낌표로 바꿔가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강의식 수업, 협동학습을 통해 수업을 진행한다.

Game 수학 맛 내기 시간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보드게임에 학습한 내용을 첨부하여 게임으로 문제를 풀거나 복습을 진행한다. 또는 Kahoot을 이용하여 문제풀이를 진행하거나 릴레이 문제풀이, 난이도별 문제풀이를 하거나 Math시간에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즉, Game시간은 보드게임, 영상, 뉴스 속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활동의 시간이다.

약속 시간보다 3분 일찍 도착	작년보다 7명 증가	-3	축구 경기에서 3점 득점	친구집은 서쪽 300m 더 가야 있어	-5
+13	-6000	오늘은 영상 13도	-9	자동차는 지하 1층에 주차되어 있어	해발 1500m
+900	내일은 영하 2도	신청자가 9명 감소	우리집은 동쪽 900m 더 가야 있어	+23	+7
약속 시간보다 5분 늦게	-300	-11	+1500	PC방에서 6000원 지출	-500
다이어트로 살이 11kg 빠짐	-40	엄마한테 10000원 용돈 받았어	수학점수 10점 하락	+10000	+3
-2	해서 40m	-10	우리집은 지상 23층	-1	학생이니까 500원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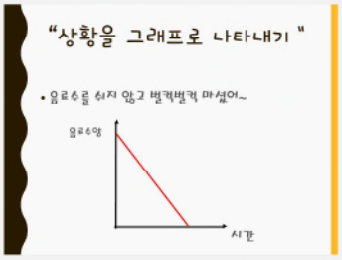
카드뒤집기 활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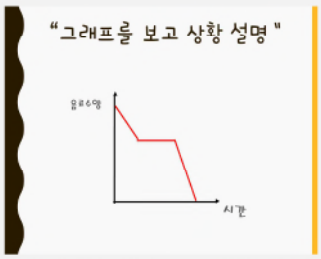
G – 카드 뒤집기(음수, 양수 개념 이해하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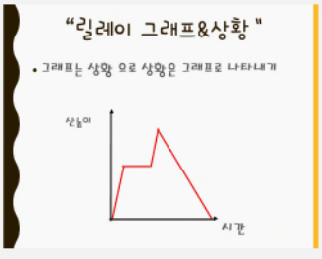
"MSG 수업의 방향성"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 화고 삶과 거리감을 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수학을 왜 배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지금 받는다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도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할 것 같다. 내가 학생일 때 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다른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똑같이 했을 때 명확하게 대답을 듣지 못했었다. 나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 나의 MSG수업은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수정해야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수업 브랜드이다. 하지만 이 수업에 명확한 것은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삶속에서 수학을 찾을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았다면 내가 생각한 수업의 방향성으로 흘러간다고 할 수 있다.

"평소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다양한 수학적 표현방법으로 표현해 보기"







글을 보고 그래프로 그려보는 활동 그래프를 보고 상황을 이야기 하는 활동 그래프-> 상황-> 그래프->상황으로 끝났을 때, 처음 주어진 상황과 같으면 성공하는 활동

MSG수업의 좋은점과 부족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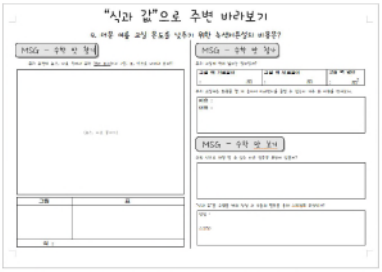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MSG라는 브랜드로 수업을 해보았던 결과 내 수업 의도에 맞았던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다.

MSG형태로 수업을 구성하였을 때 좋았점은 첫째, 학생들이 자신의 삶속에서 수학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도형 수업시간에 도형의 위치관계라는 단원은 문제풀이만 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위치관계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돌아다니며 위치관계를 찾아보도록 하였다. 이렇게 수업을 구성하니 우리가 매일 등교하며 보던 것을 더욱 자세하게 관찰하고 위치관계를 찾아보려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위치관계를 찾아 사진을 찍고 학습지에 정리하도록 하였다. 학생들 스스로도 느낀점에 매일 보던것에서 수학을 찾을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는 말이 있어 뿌듯하였다. 둘째, 학생들이 수학시간을 조금 편해하고 즐거워 한다. 매일 내용설명하고 문제푸는 것이 다였던 수학시간에 영상도 보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서로 퀴즈도 내면서 가볍게 생각해보는 시간, 계산을 연습하는 것도 수학시간에 해야 하는 활동이므로 이것을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니 학생들이 그냥 문제를 푸는 것 보다 즐거워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좋은 점도 있는 반면 부족한 점은 첫째, 게임은 이기려는 경쟁심을 키울 수 있다. 게임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경우 잘하는 학생과 팀을 하려고 하거나, 못하는 친구에게 구박을 하는 경우도 생겼다. 또는 못하는 학생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부분은 항상 협동학습을 하는데 고민을 하는 부분이다. 둘째,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게임, 활동으로 목적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활동을 하는것에 있어서 수학적 지식을 연습하고 삶과 연관짓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단순히 그 게임, 활동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으로 초점, 목적이 이동하는 경우 수업을 하였지만 학습한 것이 없다는 공허함이 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활동, 게임 등을 할 때는 꼭 학습지를 준비하고 활동 이후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셋째, 진도가 느려질 수 있고, 실력이 떨어지는 것같은 느낌을 받아 부담감이 느껴진다. 한 학년을 다른 선생님과 함께 지도하는 경우 활동수업을 할 때 진도가 느려질 수 있어 진도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겨 후반으로 갈수록 강의, 문제풀이 식의 수업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수학은 문제풀이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흥미는 떨어지지만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면 풀이법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떨어지진 않을까하는 걱정도 생긴다. 하지만 이런 부담감은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탐구하고 활동하게 되면 충분히 극복 할 수 있을 것 같다.

▲ 도둑잡기 – 식의 계산연습

▲ 다빈치 코드 – 정수 대소관계학습



▲ 뉴스에서 수학을 찾고 문제 해결 학습지

앞으로 나의 수업...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수업이지만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수학시간을 즐거워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삶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수업을 준비한 것이 뿌듯하다. 수업하는 내가 지루하면 학생들은 당연히 지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내가 즐길수 있는 수업이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의하고 문제 푸는 수업이 좋지 않은 것도 아니고 수학수업에는 강의와 문제풀이 수업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이외의 학생들의 삶과 바로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 조금이라도 즐겁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부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고민하고 수업구성을 한다면 조금 더 즐거운 수학 수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MSG라는 수업을 조금 더 구조화 하고 탄탄하게 만들어 학생들이 수학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글 | 정지인 (교무학사부)

자유학년제, 교과역량함양을 위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학교교육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한 평가는 학생의 학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미래 핵심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9월 12일 #수업태그 네 번째 모임에서는 서로 평가 해왔던 것들과 앞으로 평가할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박민영 (과학과)

과학이라서 실험으로 거의 모든 평가를 했어요. 1학기에는 학생들이 개념을 배운 상태에서 더 심화된 내용을 탐구하는 실험 수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오지 못해서 당황했어요. 모둠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잘하는 학생이 있는 모둠은 잘하지만 잘하는 학생이 없는 모둠은 거의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항상 고민스러워요. 다음에 계획한 평가는 열에너지 출입에 대한 단원인데, 초콜릿이 녹는 것, 물이 끓는 것 등 상태 변화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고 상태변화에 쓰이는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는지 찾아보는 모둠활동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평가할 때에는 자기 역할에 충실했는지, 보고서를 어떻게 완성했는지, 발표에 대해서 평가하고 동료평가와 자기평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경이 (음악과)

1학기에 뮤지컬수업은 3년 째 계속 하고 있어요.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1인 1역할이 명확히 주어져도 잘하는 학생들이 주도하게 되는 경우는 항상 생기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 만든 것이 제작노트입니다. 뮤지컬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명도 노는 학생이 없도록 자신의 역할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동안 자기 할 것이 없다고 앉아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음악감독은 음악선정을 하고, 무대감독은 무대스케치를 하고 있고, 미술감독은 작가들이랑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야기하며 스케치를 하고, 안무 감독은 어떤 안무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게 되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나면 제작노트를 기반으로 평가를 했어요. 학생들을 잘 참여시키는 데에 성공적이어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갈 예정이에요.

이나연 (영어과)

쓰기평가 중에 여름방학 숙제가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채점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2학기 시작에 그 내용에 대한 발표를 시켰었어요. 1학기 마지막에 과거형 동사를 배워서 그것을 활용해서 일기를 써오도록 했어요. 일반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잘 써왔어요.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고 과거형 동사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피드백을 주면서 평가를 했어요. 못 쓰는 학생들은 한글로라도 쓰게끔 해서 평가를 진행했어요. 2학기에는 쓰기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프로젝트형태로 주제를 정해주고 배운 것을 잘 활용해서 글을 쓰게끔 할 예정입니다.

신수영(한문과)

저는 주제선택에서 경복궁에 십장생 그림이 있어서 십장생그리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 그리더라고요. 4주 동안 고궁 현판에 쓰이는 한자를 익히고, 현판 하나하나 익히고, 고궁지도와 현판 배치에 대하여 익히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왕들이 큰 복을 누리면서 오래 부유하고 길게 살라는 의미를 넣어서 경복궁을 지었다는 의미를 좀 더 유익하게 익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경복궁을 만들어보면서 한자에 대하여 잘 익혔는지 관찰하고 평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송희 (역사과)

저는 항상 평가기준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뭐 없으면 감점.. 감점.. 다시 쪼잔하게 되더라고요. 2학기 때에는 논술형으로 시를 쓰는 평가를 했는데, 일제강점기 문학에서 '그날이 오면'을 보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일제강점기를 사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독립을 하고 싶은데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를 써보도록 했어요. 마지막은 현대사가 굉장히 어렵고 원래는 1학기를 배우는 내용이지만 프로젝트형 평가를 진행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와 연관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만의 눈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의정부고등학교를 보면 그때의 이슈가 되는 것을 모방해서 졸업사진을 찍잖아요? 이걸 수업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사의 사건을 하나씩 배울 때 영상과 사진을 같이 보여주고, 인상 깊었던 사건을 커버를 하고 관련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김소라(미술과)

저는 항상 포트폴리오 평가를 하는데, 주제 통합 수업이라든지 미술 수행평가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활동을 꾸준히 했는지 확인하고 싶고, 수행평가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생기는 것을 막고 싶어서 모든 활동지를 평가했어요. 2학기에는 '라우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모둠 평가와 개별 평가 모두 할 예정입니다. 모둠 평가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와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프로젝트 계획서는 어떻게 완성했고 발표하는 지를 볼 예정이에요. 학생들이 마을에 문제점을 직접 찾아오고 활동사진을 찍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술교과이다 보니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 것을 중점으로 모둠활동을 평가할 것입니다. 모둠별로 계획한 것을 발표한 후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아이디어를 더해서 개인별로 어떻게 완성했는지 개별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학기는 개별 평가로 거의 진행했는데, 2학기에는 모둠활동이 들어가서 상호 평가지를 활용해 동료평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은 (도덕과)

어떻게 하는 평가가 가장 도덕적인가?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1학기 때의 평가는 기록에만 매몰되어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도덕은 점수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미 없다고 느꼈어요. 정성을 들여 수업을 했지만 옳지 않았고 망한 평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도덕을 평가해야할까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활동한 수업에 대해 자기 생각을 만들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각자 모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자기생각을 갖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 제가 수업했던 것을 세분화해서 서술형 평가를 하는 수업을 준비했는데, 이번 주에 맬컴 엑스 [Malcolm X]와 마틴 루터 킹 [Martin Luther King Jr.]을 비교하며 인권수업을 진행했어요. 두 사람 모두 흑인인권해방운동을 한 것은 똑같은데 입장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권운동을 했는지, 누구의 태도가 더 옳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서술형 평가를 했어요. 매 차시마다 활동중심 수업으로 유의미하게 구성하고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자주 보고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어떻게 내가 수업하고 평가하느냐, 점수화·수치화 과정, 어떤 것이 가장 배움이 일어나는 평가인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는 성찰일기도 수업에서 했었는데, 매번 쓰다 보니 형식적으로 쓰게 되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기성장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매 차시마다 무엇을 배웠고 내가 무엇을 반성하고 실천할지 쓰도록 하는 것이에요. 성찰일지보다 더 나아가 자신의 성장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학생들에게 사전안내와 알찬수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매 차시 학생 스스로의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평가계획을 나누며:)

정지인(수학과)

1학기에 프로젝트로 수학 노래 만들기를 진행했어요. 노래를 만들 때 매일 매일 학생들이 계획을 세우고 영상을 찍어요. 노래를 만들 주제와 개사할 노래는 무엇인지, 영상은 어떻게 계획하는지 같이 구상하도록 하고, 역할 분담과 실제로 참여한 활동 내용이 무엇인지 학습지에 적을 수 있도록 했어요. 평가도 동료평가가 가능하도록 역할에 따라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서로 본 것을 적고 점수를 주도록 하여 점수화를 시켰습니다. 2학기에 진행할 프로젝트 평가는 통계 신문 만들기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단원과 주제를 정하고 제목을 만들어 표로 정리하기, 그래프 그리기, 평균 구하기 등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간 신문을 만들어 학생들이 만든 것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김초은(미술과)

이번에 3학년 학생들이 많이 소심해요. 미술작품으로 거창하게 표현하도록 하면 많이 어려워해요. 학생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살펴보니 깨작깨작 낙서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A4용지를 하나주고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창의적인 드로잉을 하도록 했어요. 입체적인 요소와 평면적인 요소 무엇이든 상관없고, 자신이 생각나는 것, 연상이 되는 것을 그리도록 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해주었어요. 동기유발이 많이 없었는데 학생들이 좋아했어요. 2학기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큰 프로젝트를 할 예정이에요. 마을 안전 생활 어플리케이션에 거모동을 보면 그동안 일어났던 범죄들이 다 나와요. 25년 이상 된 건물도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활용한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전 관련된 지도를 만들어 보는 것이요.

글 | 박민영(정보과학부)

김애라(영어과)

1학기에 진행한 평가는 논술형 평가, 프로젝트평가입니다. 첫 번째 평가는 전단지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우리 주위의 핫 플레이스를 조사해서 가게의 전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논술형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평가는 모둠활동으로 연극을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모둠별로 8명씩 모여서 대본을 외워서 연극을 하게 했어요. 이번에 학생들은 참여를 잘 안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끄러워해서 평가가 조금 힘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진행한 논술형 평가는 10년 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있을지 기사를 적어보는 것으로 학기를 마무리했어요. 2학기에도 역경을 극복한 사람에 대한 글을 써오는 서술형 평가와 프로젝트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맥락속에서 배우는 영어수업 을 소개합니다.

-현재진행형으로 상황묘사하기

지금 이곳 학생들이 학교 밖 실제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 영어가 강의에서만, 시험에서만 쓰이는 언어가 된다면, 아이들이 훗날 외국에 가거나 영어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막상 영어를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모를 것이다. 수업은 어쩔 수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실제로 사용되는 상황을 주어 맥락 속에서 영어를 학습하도록 하고자했다.

수업의 흐름

나의 수업의 주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묘사하기'였다. 학생들은 6과 'We are a team'을 배우는 중이며, 본문을 마친 상태였다. 문법내용을 아무런 상황이나 맥락없이 배우면 실제 상황에서 쓰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진행형이 쓰이는 다양한 상황을 주고자 하였다. 이 수업을 통해 현재진행형의 학습은 물론, 영어 의사소통역량과 자기관리역량을 키울 수 있길 바라며 구성하였다. 문법 첫 시간 수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도입 복습, 수업목표	➤	활동1 발견하기	➤	활동2 연습하기	➤	활동3 적용하기	➤	정리 퀴즈, 숙제

Together We Are Strong!

Some animals live in groups. They always help and care for each other. Let's meet two different animal groups: sea otters and meerkats.

Sea otters live together in groups of 10 to 100. Look at the pictures. The sea otters are sleeping together in the sea. Some are holding hands. Some are leaning on each other. Why? In the sea, the waves are too strong. They can wash the sea otters away.

What about the babies? Mother sea otters take care of them. They are holding their babies on their stomachs. The babies feel safe with their mothers.

Meerkats live in a dangerous wild desert. Enemies are everywhere. So they live in a large group. Look! One meerkat is standing straight up. What is he doing? He's watching out for enemies. Meanwhile, the other meerkats are resting or looking for food. They look relax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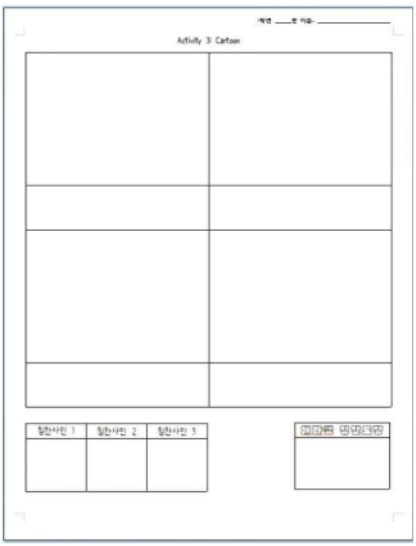
Oh, no! A scary cobra is coming. All the meerkats are fighting with the enemy. Finally, the cobra is sliding away. The victory is theirs.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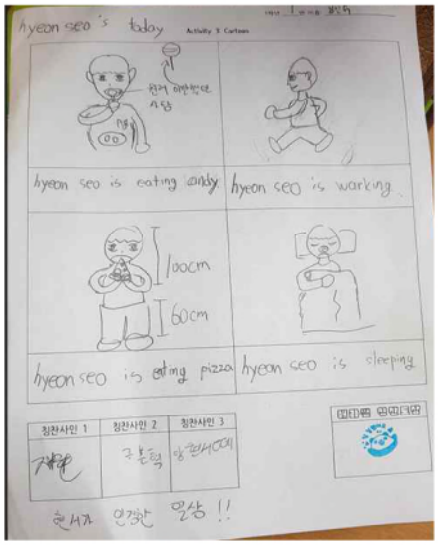
◀◀◀
1. 활동지
2. 교사제작 동영상
3. 그림카드 문자카드

단계별로 활동과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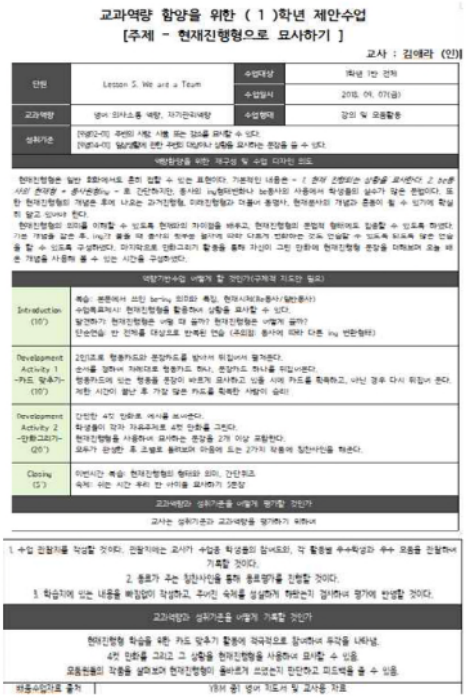
단계	교수활동	자세한 내용 + 교사의 의도
도입	복습 (Be동사)	Be동사의 의미와 주어마다 달라지는 형태를 알아야 현재진행형의 이해와 활용이 쉬워지기 때문에 간단히 복습함.
	추측	본문에서 다루었던 문장 'A meerkat is standing straight up.'을 가지고 와서 현재진행형 의미를 추측하게 함. stand up(서다)와 is(있다)의 의미를 알고 있기에 '서있다'라는 의미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설명	간단히 형태와 의미 두 가지만 설명함. (Be + ing, ~하고 있다.)
	수업목표	"현재진행형을 활용하여 상황을 묘사할 수 있다."
활동 1 (발견하기)	발견! (본문 속 현재진행형)	익숙한 지문을 활용하여 의미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형태에 집중하도록 함. 영어의 의미를 배운 후 문법의 형태를 찾아내어 직접 표시하면 문법의 형태에 대한 인식과 문장해석력을 높일 수 있음.
	발견! (특별한 현재진행형)	ing를 다르게 붙이는 경우 (come->coming)를 발견함.
활동2 (연습하기)	동영상연습 -전체학급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다 같이 연습함. 학생들의 행동이 담긴 동영상을 사용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고 실제 현재진행형을 쓸 수 있는 상황을 주어 현재진행형사용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카드매칭 -짝 활동	그림카드와 문장카드를 뒤집으며 짝을 맞추는 활동. 다양한 동사의 현재진행형을 접하게 하고자 함.
활동3 (적용하기)	4컷 만화	만화와 같은 글에서 생동감을 위해 현재진행형을 쓰는 경우가 많아, 직접 만화를 만들어보며 현재진행형을 사용하도록 함. 개별로 만든 후 조별로 돌려보며 마음에 드는 작품에 칭찬사인을 해줌. 모든 조원의 칭찬사인을 받은 학생은 교사의 칭찬도장을 받음.
정리	퀴즈	
	숙제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반의 쉬는 시간 상황묘사를 숙제로 냄.



▲ 1. 4컷만화 활동지



▲ 4컷만화 학생작품


교과역량 함양을 위한 (1)학년 제안수업
[주제 - 현재진행형으로 묘사하기]

교사 : 김예라 (인)

▶ 수업 지도안

수업 후 배운 것

많은 선생님이 봐주셔서 긴장된 마음에 너무 급히 진행된 수업이었다. 고맙게도 학생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으나,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하였다. 또한 수업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넣으려고 구성하다가 활동에 쫓겨 각각의 활동을 완벽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특히 카드 맞추기 (엎어라 뒤집어라) 활동은 모두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설명했는데, 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 혼돈의 활동이 되었다. 이번 수업을 하면서 더 확실히 느낀 점은 학생의 이해도를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도면 알겠지?'라는 나의 착각이 수업을 산으로 가게 하는 것 같다. 수업의 대상은 학생들이니 항상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전히 학생들의 이해를 확인하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수업평가회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았다. 교사와의 상호작용이나, 실제적인 활동, 학생들이 나오는 동영상으로 주의집중이 되었다는 점에서 좋았다고 하셨다. 또한 카드프로텍터를 사용하면 카드 활동 시 카드 만드는 것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바람에도 쉽게 흩어지지 않아 좋다는 팁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카드 맞추기 활동에서 미리 교사와 카드를 맞춰본 후 학습을 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피드백도 받았다. 다 너무 도움이 되는 피드백이었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

수업 후 우리 반 아이들을 보니 너무 예뻤다. 긴장한 나를 보아선지, 뒤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을 의식해서인지, 모두 다 같이 너무도 노력해준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다.

쌤이 더 노력해서 좋은 수업해줄게!! 우리 반 사랑해♥

글 | 김애라 (학생안전인권부)

6개의 재료, 6개의 이야기

"월드카페"로 배우는 포트스모던 드로잉을 소개합니다.

요즘은 수업에 대한 고민이 참 많다. 의욕 넘치게 이런 저런 활동을 시작해보다가도, 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교실이라는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든다. 미술 수업을 고민하다 보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바로 우리 반 아이들이었다. 우리 반은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향에, 낯을 많이 가린다. 종종 아침 조회시간이나 수업시간이 되면 정적이 흐르곤 하는 우리 반을 떠올리니 항상 현대미술 작품을 보며 손을 들고 큰 소리로 토의하고,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작품을 경매 하듯이 발표해야하는 나의 미술수업이 조금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끝에 생각하게 된 결론이 **'월드카페' 형식을 활용한 협동학습 수업**이었다. 강의식 수업을 통해서 교사가 설명하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수업이 아니라, 여섯 개의 모둠에 학생들이 배워야 할 드로잉 재료를 각각 두고 모둠원들이 고민하고 서로 설명해주며, 한 모둠씩 직접 체험해나가는 방식으로 수업하는 방식이다. 월드카페 방식을 활용한다면 기존의 정적인 모둠활동의 형태보다 학생 개인이 더 많은 친구들의 의견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 적극적인 성향의 학들뿐만 아니라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학생들도 모두 자신의 의견을 내어 시각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 활동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모둠은 총 6모둠으로 구성하였으며, '드로잉'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각각 여섯 개의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활동의 제한시간은 각 모둠 당 5분으로, tv에 큰 스탑워치 화면을 띄워 학생들이 시간을 확인하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스탑 워치

▼ 동기유발 자료

모든 활동의 큰 주제는 포스트 모던 미술인 세상의 다양한 드로잉이었다. 종이 위에 펜이나 물감으로 그리는 전통적인 드로잉 방식이 아니라, '어? 이것도 그림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여섯 가지 종류의 새로운 드로잉을 체험해 보는 것이다. 그대로 따라 그리고, 묘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재료를 관찰하고, 미적 감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눈으로 작품을 발상한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이번 활동의 성취기준이기에 이번 활동은 미술을 '잘'하는 학생에게만 유리한 활동은 절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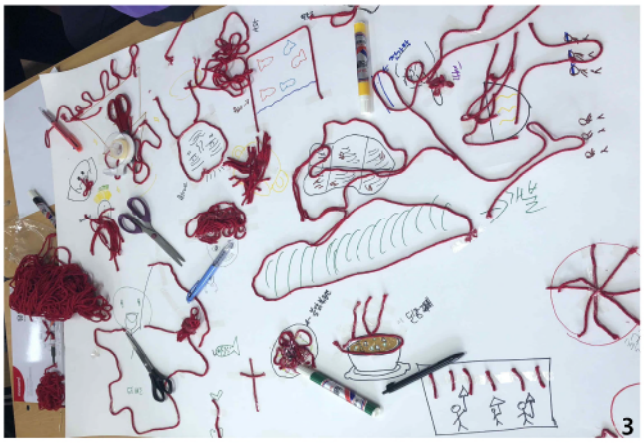
모둠 별 사용하는 재료는 ①커피, ②과자, ③클립, ④붓펜, ⑤박스 안에 다양한 재료, ⑥빨간 털실을 활용하여 드로잉하기로 구성되었다.

1. 아메리카노 드로잉
2. 과자 드로잉
3. 클립 오브제 드로잉
4. 꼼짝마! 붓 펜 크로키
5. 촉감 드로잉
6. '나는 기다립니다.'-빨간 털실 드로잉

각 모둠에서 활동을 가장 잘 이해한 MC한 명이 모둠 원들에게 활동을 설명하고, 모둠 원들은 제한시간 5분 안에 드로잉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5분의 활동을 끝낸 학생들은 활동을 가장 잘 이행한 한 명의 MC만 남겨둔 채 옆 모둠으로 이동하여 모든 드로잉을 체험하였다.

활동을 하며 가장 아쉬웠던 점은 MC의 역할이었다. 선생님의 설명이 아닌 MC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서로의 눈높이에서 활동을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소극적인 학생이 MC가 되었을 경우 모둠 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느껴졌다. 이것은 월드카페 수업을 하며 가장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반면 가장 좋았던 점은 5분에 한 번 씩 활동의 재료가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의 집중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과, 현재의 모둠 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활동이 어렵다고 느껴질 경우에도 자신과 잘 맞는 다음 주제를 만나면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았던 첫 월드카페 수업이었지만, 많이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미술 수업 뿐 아니라 학급 경영에 있어서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협동학습 모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글 | 김초은(방과후 봉사부)



▲ 1.붓펜드로잉 2.과자드로잉 3.털실드로잉 4.제안수업

현재 2018년 자유학기는 안착단계로 그동안 지속 확대, 발전된 제도로 정착하였다. 경기 자유학년제 운영계획에 따르면 자유학년제를 '중학교 과정 1년 동안 학생들이 일제식 지필평가의 부담에서 벗어나 삶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배움중심수업과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라고 소개하고 있다.

행복한 배움으로 모두가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행복한 학교

삶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수업, 자기 생각을 만들 수 있는 토론, 논술, 프로젝트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는 수업, 교육과정재구성-수업-평가-기록 일체화를 이루는 수업, 피드백을 통한 학생-교사 상호 성장을 이루는 수업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어교사로 살아가기

교과교사로서 자유학기 수업은 그동안 매년 맡아왔기 때문에 영어 교과에서 디자인할 수 있는 자유학기 수업을 여러 가지 시행해 보았으나 사실 지난세월 만큼의 발전을 이루었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된다. 수업 이름만 해도 처음 했던 '영어스토리북'에서 'English Book'으로 살짝 바꾸기만 했을 뿐 많이 발전된 수업으로 정착하지는 못했다. 자유학기 관련 연수도 듣고 다른 수업 엿보기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2학기 들어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으며 아직도 매 수업을 고민하고 있는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다.

스스로의 수업을 되돌아본다면, 일반 교과수업에서도 매 단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수업 또는 과정중심활동을 계속 연구하게 되고, 학생들의 하루하루의 활동들을 더 세심히 관찰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이다. 개별 학생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아, 저건 과목별세부능력에 적어주어야지.' 하며 파일에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다보니 단점만 보였던 학생들에게서도 '아, 저런 면이 있었구나. 달리보이네.'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수업을 통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서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자유학기 동아리수업도 맡고 있으며, 이제는 교과관련 수업뿐만 아니라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 수업을

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또 다른 능력을 키워야 할 때인 것 같다. 살아남기 위해 악기라도 하나 배워야 할 것 같다는 어느 선생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역량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오늘도 수업을 생각한다.

학교 안 작은 문화센터

자유학기제 담당부장님께서 자유학기제를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크게 공감하였다. 올해 군자중학교 1학년 1학기 자유학기제는 진로탐색활동과 국어, 영어, 도덕에서 총 7개의 주제선택활동을 운영하였으며, 2학년은 국어, 영어에서 연계자유학기활동을 시행하였다. 2학기 자유학기제는 1학년 7개 반을 대상으로 8개의 동아리활동, 8개의 예술체육활동, 7개의 주제선택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진로캠프 및 다양한 자유학기활동으로 1년간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선생님들이 힘쓰시고 있다. 자유학기의 기본방향대로 프로그램 개설 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대한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별로 짜여진 교과시간표대로 똑같은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학기시간 만큼은 서로 다른 반으로 흩어져 원하는 수업을 듣는 만큼 '작은 문화센터'라고 할 만 하다.

자유학기 수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Q 선생님께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도, 수업과정 등 전체적인 만족도와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A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교과목을 실생활에 연결하여 수업하므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고, 수업에 대한 이해력과 탐구심이 보여 학업성취도가 확인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자료를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고, 미래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다.

Q 수업진행에 어려운 점이나 고쳐졌으면 하는 점은?

A 주제선택활동의 경우 3시간 연속 수업을 교사 혼자 진행하기가 수업 재료 구입과 준비과정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 2시간과 1시간으로 분할수업을 하거나 두 명의 교사가 투입되는 것도 좋은 대안일 것 같다. 또한 각 교과별로 필요한 예산이 다르므로 사전에 교과별로 상의하여 유연하게 분배되어 더 질 높은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흥미와 요구가 더 반영되었으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바랐다. 수영, 승마, 골프 등 체험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활동들이나 네일아트, 미용 등 전문가가 필요한 수업에 대한 희망도 있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과학 실험반은 두 개 이상 개설해주기를 희망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개설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을 사전 조사하고 최대한 많은 수를 운영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에 투입된 교사수가 부족하고, 한반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의 선택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내년부터는 강사를 채용하기도 힘들어진다고 하니, 정말 선생님들이 과목 상관없는 특기를 가져야 할 것 같다.

자유학년제 내실화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도 회복을 기대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의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다.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이 강화된 만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연수를 지원해주고 필요하면 현장지원단이나 컨설팅을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

글 | 이나연 (교육과정부)

"올바른 학습공동체를 위한 방향"

(위로-문화-수업-연구공동체로 성장하기)

아이들로 인해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고민은 교사모임을 통해 함께 나누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서로 모여 함께 수업에 관한 고민을 나누다보면 간혹 '성토대회'처럼 흘러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면 모임 이후 허탈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올바른 교사모임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또, 그것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군자중학교 ○○○교사-

지금 군자중학교에 꼭 필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군자중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가장 주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친 학생들 속에서 교사의 내면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일수록 교사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동력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사의 내면을 만질 수 있는 자발적 공동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당위적인 틀로 이거해야 한다, 저거 해야 한다. 라고 다그치면 선생님들의 자존감은 더 무너지고 학교 오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것이 성토대회라고 할지라도 일단 교사들의 내면 속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위로 공동체 ◇

저는 그것을 '위로 공동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위로 공동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동세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야 하고, 그곳은 안전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지향하기보다는, 그냥 모인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의 속성은 자발성과 안전지대, 그리고 따뜻한 나눔에 있어야 하는데, 자꾸만 공동체 앞에, 전문적 학습이라는 버거운 제목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어떤 연구, 문제 해결, 성과 달성이라는 이질적인 조합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공동체가 어떤 목적성을 띄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아주 좋은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그런 과정 없이 처음부터 전문적 학습을 위한 연구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들은 과업에 더 집중하게 되고, 교사의 내면과 그 삶은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나눠지지 못하고, 또 다시 소외됩니다. 문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꾸미게 되고, 예산을 소모하는 형식적인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동체는 설사 그것이 고민 성토대회라 할지라도 일단 '위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한 선생님, 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지를 공동체의 환대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준비하는 팔로워가 필요합니다. 그 학교 내에서 헌신적인 사람 3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3개월간은 2주에 한 번씩 자주 모이면서, 서로의 삶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의 삶과 고민을 공유하면서,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면, 공동체 안에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서로 무엇인가를 또 다시 하자는 소리가 들립니다.

◇ 문화 공동체 ◇

이럴 때 자연스럽게 '문화 공동체'로 넘어가면 좋습니다. 문화 공동체라 함은, 독서 나눔, 영화 관람, 소박한 산책, 맛집 탐방, 꽃꽂이 체험, 켈리그라피, 향초 만들 기 등 학교생활에서 지치고 아픈 선생님들이, 학교생활로부터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들이 단순히 1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문화 활동들이 내게 어떤 영감과 깨달음을 주었는지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2주간 한 번씩 진행한다면, 반드시 2주에 한 번은 독서 모임을 갖고 또 다른 2주는 앞서 예시한 조금은 가벼운 문화체험을 하면 좋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서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나의 삶에서 더 확장되어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화 공동체 안에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머무르게 되면, 이제 서서히 학교 안의 문제를 적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수업입니다.

결국 공동체의 성장은, 헌신적인 리더 그룹이 있어야 하고,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가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 수업 공동체 ◇

위로 공동체, 문화 공동체로 축적되는 에너지를 이제 수업 공동체로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서로의 수업을 공개하고 나누면서, 수업 속 교사의 실제적인 문제를 같이 찾고, 그 고민에 귀 기울여주면서, 같이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업친구와 함께 하는 수업나눔'이라고 '교사, 수업에서 나를 만나다'에 적었는데, 자세한 절차와 과정은 이 책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수업을 평가하고 수업 기술을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수업자 선생님의 시선 속에서 수업을 보면서 선생님이 노력하고 있는 점, 애쓰고 있는 점을 같이 찾아주고, 선생님의 고민에 함께 머무르면서 공감과 이해의 시선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같이 나누는 작업이 생기면, 학교 안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연구과제가 보일 것입니다.

◇ 연구 공동체 ◇

이때 비로서 공동체는 연구 공동체 되려고 할 겁니다. 선생님들 안에서 학교 안에 해결해야 연구과제가 무엇인지를 서로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 선생님들 안에서 많은 문제의식이 많을 텐데요. 그럴 때는 그 문제의식들을 다 적어보고,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뽑아 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군자중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 차원에서 해야 할 일, 교사 개인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관계된 책을 같이 읽어도 보고, 경험적인 나눔들을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인 흥덕고, 경기 덕양중, 인천 신흥중, 인천 영종고 등 이미 학생들과의 큰 전쟁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에게 바른 경계 세우기를 하고 있는 학교들을 연구하고, 각 학교의 선생님들을 강사로 초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들으면 좋을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의 성장은, 헌신적인 리더 그룹이 있어야 하고,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가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를 보게 될 때, 학교 안에서 공동체 그룹이 하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이 필요합니다. 군자중 안에서도, 학생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버티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을 텐데, 꾸준히 만나고 모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들을 나누면서 함께 모이고 떠들고 웃으면서 에너지를 축적해야 합니다. 같이 수업을 나누고 그 고민에 머물러주면, 자연스럽게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는 것
작지만 끝까지 꾸준히 밀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의 길이다.
- 박노해-

공동체의 힘으로 작지만, 끝까지 꾸준히 밀어가는 힘을 얻는 군자중 선생님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위대한 삶의 길을 걷는 위대한 교사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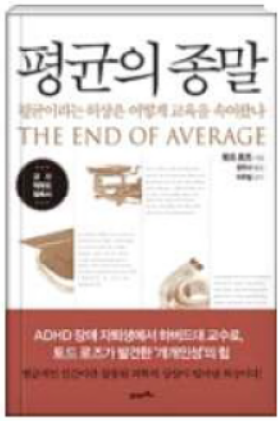
글 | 김소라 (혁신교육부)

◎ 김태현 선생님 약력 ◎

-좋은교사 수업코칭연구소 부소장
-EBS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수업코칭교사
-저서 〉 교사, 수업에서 나를 만나다(좋은교사, 2012)
〉 내가 사랑하는 수업(좋은 씨앗, 2010)
〉 큐티, 공부와 만나다(성서유니온, 2011)
〉 생각나무 논술열매(한나래, 2010) 외 다수

책

평균의 종말



토드로즈 저
21세기북스

평균은 우리 삶에 너무나 익숙하다. 시험을 보면 내 성적의 평균을 내고 반평균, 학년평균과 항상 비교했다. 뉴스나 여러 매체에서도 평균을 낸 자료들로 사람들의 신뢰를 높인다.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들이 사람들의 평균과 비슷하면 안심한다. 평균에 맞춰 사는 세상에 있는 내게 평균의 종말은 조금 두려운 제목이었다.

내가 받아왔던 지금까지의 교육이 나를 평균보다 잘하는 것을 원하는 학생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위해 공부를 했었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학생의 개개인성을 발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데 급급하다는 말에 공감한다. 이 구절을 보고 눈에 띄지 않게 행동과 생각을 조심했던 학생시절 나의 모습과 수업시간에 과하게 눈에 띄는 행동을 한 학생을 꾸짖는 나의 모습이 생각났다. 그 학생에게 있는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왜 평균에 비추어 평가했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개인에 맞게 수업하기, 개인의 특성을 강조한다. 이런 학교 현장을 위해서 평균의 종말은 교육에 필수적이다. 학생들 각각의 장점을 찾아 개개인성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글 | 박민영(정보과학부)

책

공부상처

경기도교육연구소 저
에듀니티
2017.11.10.

'총꾸중량과 총칭찬량을 비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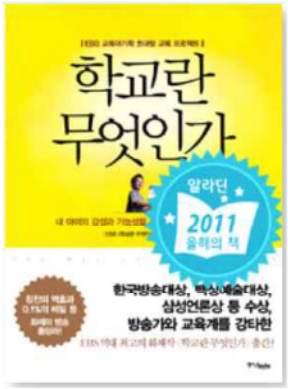
담임교사로서 하루를 보내면서 학급 아이들을 혼낸 횟수와 칭찬한 횟수를 따져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다. 총꾸중량이 총칭찬량을 넘어서면 아이들은 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충고이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혼나는 것이 마땅한 결과이고 학급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가 혼내기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은 잘못된 것일까. 이 책의 저자는 꾸중과 벌, 두려움과 냉대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마음은 분노와 울분, 자포자기로 가득찰 것이라 말한다. 공부나 성적 또는 생활 습관이나 태도 때문에 아이들을 죽일 듯이, 버릴 듯이, 못났다는 듯이 혼내는 일을 제발 줄여 달라고 말한다.

사실 그렇다. 일부러 못나고 싶은 아이도 없고 부모나 교사의 속을 썩이려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도 없는데, 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지 못했을까 깊이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그만 혼내기 운동을 동참해야겠다.

글 | 이나연(교육과정부)

책

학교란 무엇인가 1



EBS <학교란무엇인가>제작팀
중앙BOOKS

충격과 힐링을 받으면서 감성과 가능성을 살리는 토탈 교육 솔루션『학교란 무엇인가』를 시청했다. 흔들리는 교육에 새로운 방향타를 제시하는 EBS 교육대기획 프로그램 <학교란 무엇인가>가 책으로 나왔다기에 여러 보기 중 주저함없이 이 책을 선택했다. 교육현장에서의 치열한 충돌과 깊은 고민, 개선과정을 포착해 그려낸 책이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사이다처럼 녹아들어 그들의 진언을 토대로, 진실이라고 믿었던 칭찬의 역효과, 공부의 기초가 되는 독서교육법, 영재와 범재를 가르는 부모의 대화법, 시키는 공부가 아닌 자기주도형 학습을 만들기 위한 스스로 터득하는 배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게 하는 메타인지의 힘 등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서술하는 책은 새로운 자극으로 끊임없이 경종을 울려주었다. 많은 시행착오를 요하겠지만 이 책을 계기로 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교육방법을 바로 잡고 내 몸에 맞는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찾아보려 한다. 그 시작이 '학교란 무엇인가'란 물음이었다.

글 | 신수영(교육연구부)

영화

어느 가족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릴리프랭키,
안도사쿠라
2018.7.6.개봉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어느 주제와 이야기에도 묵직하고 깊이있는 울림을 주는 믿고 보는 고레에다히로카즈의 2018년 작품이다.

이 영화는 기묘한 가족의 이야기다. 가족의 구성원이 일반적인 가족구성원과는 다르게 결합되어 있고,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의 수단 역시 일반적이지 않다. 감독의 전작인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서 우리는 핏줄과 시간 중 무엇이 가족을 만드는가를 생각해보도록 했다면, 이 영화에서는 어떤 가족까지를 진짜 가족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다.

얼마 전에 타계한 배우 기키고린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다. 영화 속에서 그녀는 가족들에게 입모양으로 '그동안 다들 고마웠어'라고 하고 다음 날 세상을 떠나는데, 영화와 오버랩되며 그녀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 장면이 오래도록 생각났다.

<어느가족>은 우리가 늘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가족은 아니다. 고레에다히로카즈의 자서전에는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다거나 가족이니까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가족이니까 들키기 싫다거나 가족이니까 모른다 같은 경우가 실제 생활에서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한다." 가족에 대해 멀리 한 발짝 떨어져 생각해보기에 좋은 영화, <어느가족>이다.

글 | 이정은(혁신교육부)

발행일 2018년 10월 31일
발행처 역량기반수업연구회(#수업태그)
발행인 군자중학교장 박용국
편 집 군자중학교 혁신교육부
기 획 역량기반수업연구회(#수업태그)